

같이 보기

: 나눔으로 함께하는 KIHA

부산 유기동물 보호소 자원봉사 체험기



글 홍창배 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병들거나 다쳐서 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이 보호소에 와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다리 하나가 없는 동물도 있고, 병을 이기지 못해 보호소 안에서 죽는 경우도 봤어요. 시간 날 때마다 봉사활동 와서 밥을 주고 청소해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난 10월 22일,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냐는 질문에 김정미(46) 씨는 이같이 답했다. 이들 봉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역한 냄새나 강아지·고양이 울음소리, 신체노동에서 오는 피곤함보다 버림받은 동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접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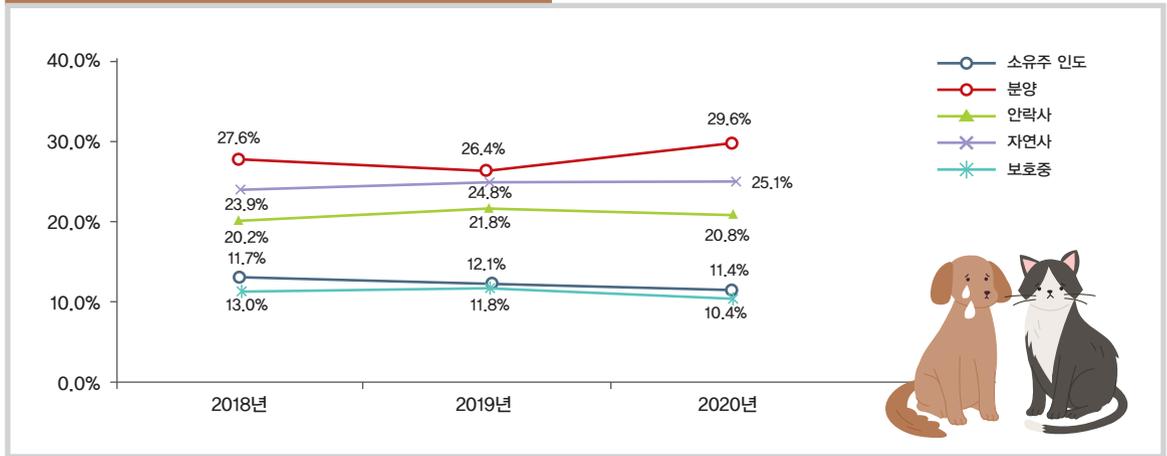
몇 년 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만큼 유기동물 발생량도 증가했다. 다만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2019년 유기동물은 개가 95,261마리(73.1%), 고양이가 33,572마리(25.7%), 기타 동물이 1,568마리(1.2%)였다.

유기견 발생은 전년 대비 줄었고, 유기묘 발생은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13만 40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고, 개 73.1%, 고양이 25.7%, 기타 1.2%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사지말고 입양하시게 부산동물 보호센터 입구

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주요 보호형태 현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1년 5월 발표자료

3.9% 감소한 숫자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9.6%, 자연사 25.1%, 안락사 20.8%, 소유주 인도 11.4%, 보호 중 10.4% 순으로 처리되었으며, 2019년 대비 분양은 3.2%p 증가하였다.

유기동물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인적 자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부산 유기동물보호소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관심·걱정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했다. 일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닿는 데까지 보호소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도맡는다.

대부분 보호소는 대형견과 소형견, 고양이들의 격리 장소가 다르다. 대형견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대형견 격리구역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 보호소에 도착하면 먼저 케이지가 있는 방 청소, 대형견사 청소 등 보호소를 청소한다. 메인 견사의 대소변을 치우고, 바닥에 세정제를

*** 봉사활동 시 준비물 ***

- 1 일회용 방진복
- 2 장화(욕실에서 배변판도 씻고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장화 필수)
- 3 목장갑+ 고무장갑+ 마스크

뿌려서 청소한다. 이후 배변판 패드를 깔고 배변판도 욕실에서 청소한다. 견사를 청소하면서 담요는 건어 세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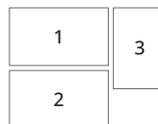
이날은 총 9명의 봉사자가 보호소를 찾았다. 각자 장갑과 앞치마, 장화를 착용하고 배변 치우기, 내부 청소 등 일을 시작했다. 청소를 위해 견사에 들어가면 슈퍼스타가 된다. 사람이 그리웠던 아이들은 점프하고 안기고 난리가 난다.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예뻐해 줘야 한다고 한다.

내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동물들 밥그릇 설거지였다. 이곳에 있는 동물들이 약 100마리, 한 마리당 2개의 그릇(물·사료)을 사용하니 어림잡아도 200개의 그릇이었다. 단순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노동 강도는 꽤 높았다. 설거지가 끝나고, '분양실'의 강아지들

에게 사료와 물을 주었다. 1세 미만, 8세 이상 강아지에게 주는 사료와 더 나이를 먹은 개들에게 주는 사료가 달랐다.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청소가 끝나면 아이들과 산책도 하는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산책도 같이하고 놀기도 한다. 한창 놀다 보면 훑아떨어지는 녀석들이 생긴다. 애정을 갈구하는 아이들은 만져달라며 봉사자들을 쫓아쫓아 따라다닌다. 봉사자가 많을 때는 안아주기도 하지만, 사람이 적은 날에는 이마저도 어려워서 안타깝다.

안타깝게도 이 보호소의 동물들이 입양되는 비율은 낮다. 지난 7월에는 173마리 중 28마리만이 입양됐고, 8월에는 156마리 중 22마리, 9월에는 133마리



- 1 세척 후 정리한 그릇들
- 2 견사 청소를 위해 밖에 나온 개
- 3 봉사자들을 보고 모여든 강아지들



견사 바닥도 깨끗하게!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고양이들

중 26마리, 이번 달(10월 22일 기준)은 96마리 중 13마리만이 입양되었다고 한다.

방문했을 때 어느 유기동물 봉사동아리에서 게시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사·안락사하는 동물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고 한다. 또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공고를 보고 찾으러 와서 주인에게 반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아이를 보호해줘 감사하다'는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태가 왜 이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어 "물론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호소·봉사자들이 동물들의 삶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든 일정이 끝나니 시계는 오후 네 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다소 피곤했지만 깨끗해진 견사를 보니 보람도 있고 귀여운 동물들을 보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휴일을 맞아 쉬거나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유기동물 보호소 자원봉사 체험기를 마무리해본다. 🐾